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김소정¹, 이창식^{2*}

¹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²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A Study on Needs of Women Immigrants on Life-Long Education

So-Jung Kim¹ and Chang-Seek Lee^{2*}

¹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12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생교육 요구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선순위 결정은 Borich 결정 공식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요구 우선순위는 첫째, 취업교육, 둘째, 자녀교육, 셋째, 임신·출산·건강생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needs and determine the priority of needs of women immigrants on life-long edu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21 women immigrants who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before. Borich priority determination formula and Locus for Focus Model were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of need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riority of needs were in order of education for employment, education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for pregnancy, delivery and health life. The sugges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of women immigrants are discussed.

Key Words : Women immigrant, Need on Life-long Education, Borich Priority Determination Formula, The Locus for Focus Model

1. 서론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이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3.5%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13.5%, 2010년에는 10.5%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결혼이민자 141,654명 중 여성이 123,093명(87%), 남성이 18,561명(13%)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충격의 완화를 위하여 다문화사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

성은 물론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대비는 물론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2008년 9월 22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하여 외국인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을 떠나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내로, 어머니의 역할까지

본 논문은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이창식

Tel: +82-10-2460-1246 e-mail: lee12467@hanmail.net

접수일 11년 12월 19일 수정일 12년 01월 06일

게재확정일 12년 03월 08일

하며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될 글로벌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중요하다[2].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분야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5, 13], 문화교육[12] 등으로 치중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는 허명옥(2009)[10]의 연구 등 소수에 불과하여, 다양한 출신국, 다른 문화적 배경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념 및 현황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주부’, ‘결혼이민자’ 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의를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주여성이란 여성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성매매종사 외국인 여성, 국제적 인식매매 피해 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므로 혼인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4].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2항에 “결혼이민자”란 대한국민과 혼인한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국제결혼 추세는 2005년 42,356건을 정점으로 2008년 36,240건, 2009년 33,300건, 2010년 24,23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2.95배가 증가하였다. 한국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10.5%를 차지하여 2004년 이후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3만 여명에 가까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

리 사회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1].

2010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는 중국 9,623건(55.6%), 베트남 9,625건(21.8%), 필리핀 1,906건(5.6%), 일본 1,193건(4.4%)의 순으로 나타났다[1].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비율은 ‘특별시·광역시’보다 ‘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 시도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14.3%), 전라북도(11.1%), 제주특별자치도(11%)의 순이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은 전라남도(24.6%), 경상북도(20.8%), 충청남도(18.3%)의 순으로 나타났다[1]. 즉,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평생교육 요구

2.1.1 평생교육 요구와 요구분석

요구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간의 격차를 말한다[7]. 또한 개인이 느끼고 있는 무엇인가의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나 상황을 뜻한다[8].

한편 요구가 학습자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사이의 차이[21]를 의미한다면, 요구분석은 현재의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요구분석의 의미를 보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요구분석은 교수체제의 설계와 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교수 자료개발을 위한 모든 체계적인 접근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11, 16].

성인교육 활동이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학습 참가를 위해서 학습자의 요구와 동기부여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14, 15] 여성결혼이민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요구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의 각각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128부 중 기재가 부실하고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12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20대 44.3%, 30대 40.3%, 40대 이상이 14.8%의 순으로 20대와 30대가 80% 이상 차지하였으며, 출신국은 중국 47.9%, 베트남 37.8%, 필리핀 6.7%, 일본 5.0%로 나타나 전국의 분포 순위와 유사하였다. 종교는 불교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3.7%, 무교 21.9%, 기독교·천주교 21.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경로는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경우가 39.8%, 기타 27.1%, 친구소개 26.3%, 종교·행정기관 6.8%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인 61.1%, 10년 미만 26.9%, 10년 이상이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상·중·인 가정이 82.9%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하 17.1%, 상 1.7%순으로 분포하였다. 직업이 무 또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77.7%이며, 배우자의 직업은 관리직, 사무직, 무직, 기타 44.1%, 자영업 20.3%, 판매, 서비스, 생산직 19.5%, 농업업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조사도구

3.2.1 평생교육 요구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황정미 외(2008)[9], 정해은(2008)[17], 김유경 외(2008)[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명옥(2008)[10]이 구성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부부관계 4문항, 한국어 2문항, 한국 생활-예의-적응 4문항, 자녀-건강교육 6문항, 취업교육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부부관계-현재수준 .767, 필요수준 .871, 한국어-현재수준 .725, 필요수준 .155, 한국사회적응-현재수준 .880, 필요수준 .693, 자녀-건강교육-현재수준 .864, 필요수준 .777, 취업교육-현재수준 .904, 필요수준 .841로 나타났다. 한국어 필요수준 Cronbach's α값이 .155로 낮으나 문항 수가 2개 문항으로 적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하였다[19].

3.2.2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 문항은 연령, 출신국가, 종교, 결혼경로, 한국 거주기간, 본인의 최종학력, 배우자의 최종학력, 생활수준(경제수준), 본인의 직업, 배우자의 직업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PC+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교육내용의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셋째, Borich의 요구도 계산방법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교육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3.3.1 Borich의 우선순위의 결정 공식

교육요구란 목적과 교육생의 교육목적 달성정도, 즉 교육생 성과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20]. 다시 말하면, 현재수준(what is)과 도달해야 할 수준(what should be)의 차이를 요구라고 할 수 있다[18].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Borich의 우선순위 결정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Borich의 우선순위 결정 공식은 그림 1과 같다.

	RL : 필요수준
$\text{요구도} \approx \frac{(\sum(\text{RL} - \text{PL})) \times \text{RL}}{N}$	PL : 현재수준
	RL : 필요수준의 평균
	N : 전체 사례수

[그림 1] Borich의 우선순위 결정 공식
[Fig. 1] The formula for the priority decision of Bo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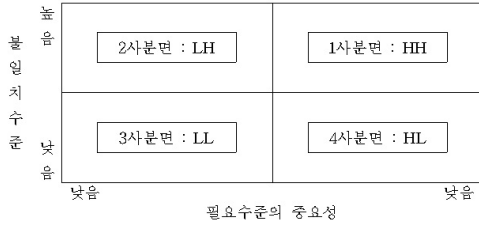
Borich의 우선순위 결정 공식에 의하면 두 상태의 단순한 차이를 통해 요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차를 모두 합한 값에 필요 수준의 평균을 곱한 값을 전체사례로 나누는 값을 통하여 요구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3.2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두드러진 특징은 좌표평면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좌표평면을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 요구분석은 다른 기법에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면, Herschkowitz의 임계함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The Locus for focus model은 요구되는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수준의 중요성, 현재수준의 중요성,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 정도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22]. 즉,

가로축은 필요수준의 불일치정도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필요수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4사분면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림 2] 포커스 모델의 로커스
[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제1사분면은 필요수준의 중요성 및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 정도가 높으며, 제2사분면은 필요수준의 중요성은 낮지만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가 높다. 제3사분면은 필요수준의 중요성이 낮으며,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 또한 낮다. 제4사분면은 필요수준의 중요성이 높지만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가 낮은 분면을 말한다. 따라서 필요수준의 중요성이 높지만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불일치 정도 또한 높은 제1사분면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10].

4. 연구결과

4.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인식하는 평생교육의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평생교육 영역에서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든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평생교육영역별 현재 및 필요수준에 대한 차이
[Table 1] Differences between what-is and what-should-be of the needs by categories of life-long education

내용	현재수준		필요수준		요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부부관계	3.34	.7	3.89	.77	.55	.92	6.39***
한국어 교육	3.20	1.10	4.18	.67	.98	1.24	8.33***

한국 생활·예의·적응	3.54	.90	4.19	.66	.65	1.08	6.48***
자녀 교육 임신·출산·건강 생활	3.22	.85	4.38	.57	1.16	1.03	12.23***
취업 교육	2.71	1.17	4.37	.77	1.66	1.46	11.99***

***p<.001

4.2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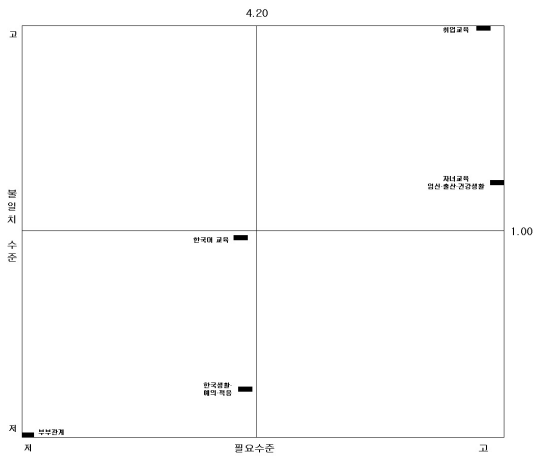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를 Borich의 요구도 계산방법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결정한 결과 표 2와 같다. 요구도 7.53인 취업교육에 대한 교육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구도 5.49의 자녀교육, 임신·출산·건강생활이 2순위, 요구도 4.42인 한국어교육이 3순위, 요구도 2.55인 한국생활 예의·적응이 4순위, 요구도 2.52인 부부관계가 5순위로 나타났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위
[Table 2] The Borich's priority of life-long education needs of women immigrants

영역	평균		요구	
	현재수준	필요수준	요구도	우선순위
부부관계	3.34	3.89	2.52	5
한국어 교육	3.20	4.18	4.42	3
한국생활·예의·적응	3.54	4.19	2.55	4
자녀교육, 임신·출산·건강 생활	3.22	4.38	5.49	2
취업교육	2.71	4.37	7.53	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범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의 필요수준의 평균은 4.20이며, 불일치 수준이 평균 1.00으로 평균과 불일치 수준의 평균을 각각 축으로 하여 제4사분면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1사분면의 영역이 필요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불일치 수준이 높은 분면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다. 제1사분면에는 취업교육, 자녀교육, 임신·출산·생활건강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구성의 항목들의 세부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림 3] 평생교육 요구의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
[Fig. 3] Analysis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of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표 3] 포커스 모델의 로커스에 의한 분면 별 평생교육내용
[Fig. 3] The contents of life-long education by quarter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면	교육내용
1사 분면	컴퓨터 교육, 취업교육 및 훈련, 자녀학습 방법, 한국의 교육제도,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방법, 질병예방, 의료기관 이용방법
2사 분면	
3사 분면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교육, 한국의 임신·출산·육아 방법,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남녀의 효과적 대화기술, 한국의 예의범절, 한국의 음식 문화, 한국의 경제생활, 한국 가족에 대한 기본 내용, 결혼의 의미·기대차이, 부부의 성생활
4사 분면	

종합적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우선순위의 영역에 포함된 항목 개수와 항목들을 고려하여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위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자녀·임신·출산·생활건강교육과 취업교육의 총 2개 영역이었다. 이는 5개 교육영역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예의·적응 영역은 앞에서 도출된 영역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에 의한 요구 비교

[Fig. 4] Comparison of needs by Borich's method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내용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요구	
	Borich	The locus for focus model
부부관계	○	
한국어 교육	○	
한국생활 예의·적응	○	
자녀교육, 임신·출산·건강생활	○	○
취업교육	○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부족한 점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생교육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요구를 파악한 결과 취업교육 7.53, 자녀교육·임신·출산·건강생활 5.49, 한국어교육 4.42, 한국생활 예의·적응 2.55, 부부관계 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취업교육, 자녀교육·임신·출산·건강생활의 영역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도와 우선순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취업교육, 자녀교육, 임신·출산·건강생활 영역으로 나타났다. 취업교육과 자녀교육의 요구가 높다는 이 연구 결과는 허명옥(2009)[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특히 취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취업교육을 통해 컴퓨터 및 정보화 등과 같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이 시도되어야 하며, 그들의 특성 및 지역을 고려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종 개발과, 일자리 제공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한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한두 해 지내다 돌아가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설문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대상자 수가 적은 점, 그리고 연구대상 지역이 서울과 충청남도에 한정된 점, 그리고 조사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한정한 점은 전국단위 샘플링과 조사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차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영역을 5개의 영역으로 제한 한 점 또한 한계이며 이러한 원인은 한국어가 서투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설문지 외국어 번역 등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ttp://www.nso.go.kr>
- [2] Kim, M. R.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ly Married Immigrant Women. MS dissertation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2009.
- [3] Kim, Y. K. et al.fh. Welfare Policies in multicultural er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4] Seol, D. H. et al.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oreigner's human rights in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4.
- [5] Lee, E. G. A Study on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Jeonnam Distrist. MS dissertation of Mokpo University 2009.
- [6] Lee, T. O. A Study on the Family and the Social Network for the Immigrated Women. MS dissertation of Kwangju University 2006.
- [7] Jeong, S. O. Needs Analysis on Ecological Education Programs. MS dissertation of Soon Chun Hyang University 2010.
- [8] Han, J. S. Social Education. Chungabook 1987.
- [9] Hwang, F. M. et al.fh. International Marriage Person concerned Marriage Education Systemization of Preparations, Casting plan Stud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 [10] Heo, M. O. Lifelong Study Requirement Analysis of the family of Multi Cultures. MS dissertation of Korea University. 2008.
- [11] Heo, U. N. Industrial Education Requirement Analysis. BaeYeongsa 1993.
- [12] Kim, M, J. et al.fh. A Study of the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5(4), pp. 711-737. 2010.
- [13] Hong, Y. D. The Analysis of 'Female Married Immigrants' Actual Situations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MS dissertation of Keimyung University 2009.
- [14] Long, H. B. Adult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Cambridge: The Adult Education Company. 1983.
- [15] Wlodkowski, R. J.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guide to improving instruction and increasing learner achiev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1983.
- [16] Burton, J., & Merrill, P. F.. Needs assessment : Goals, needs and priorities. In L. J. Briggs, K. L. Gustafson, & M. N. Tillman(Ed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 Instructional design, pp. 18-43. 1991.
- [17] Cheong, H. E. A funda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Etiquett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17, pp. 59-86. 2008.
- [18] Cho, D. Y.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 pp. 165-187. 2009.
- [19] Mui, A. Multidimensional Predictors of Caregiver Strain Among Older PErsons Caring for Frail Spou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 799-740. 1995.
- [20] Borich, G..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1980.
- [21]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Andragogy versus Pedagog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70
- [22] Mink, O. G., Shultz, J. M., & Mink, B. P.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TX: Somerset Consulting Group, Inc. 1991

김 소 정(So-Jung Kim)

[정회원]



- 2011년 3월 ~ 현재: 희망연구소 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정책연구소 연구원
- 2012년 2월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학 석사)

<관심분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이 창 식(Chang-Seek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아동청소년복지